

# 교회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아!

“순진한 아이들 꼬셔서 인생 망치게 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교회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도 아닌 인간이 온갖 착취를 다하고”

“목사의 꾸준한 (성)범죄 이 정도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스러워요”

위의 두 따온 글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의뢰해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실시한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에서 목회자 성범죄 이슈를 분석하면서 인용한 온라인 댓글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따온 글이 지적했듯이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는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4대 이슈’는 2019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연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빠지지 않는 고정 이슈가 목회자 성범죄 문제이다. 또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였다는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 데이터는 목회자보다는 일반성도에게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내 성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넘버즈 130호에서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1년 11월에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 가운데 중요 사항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성의식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자기성찰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30호의 내용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서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1년 11월 18일에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개요

구분	개신교인 조사	목회자 조사
• 조사 대상	만 19세 ~ 65세 교회 출석 개신교인	담임목사, 부목사, 설교/협력 목사
• 조사 지역	전 국	전 국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 표본 규모	총 800명 (유효 표본)	총 212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개신교인의 성/연령/지역 따른 비례할당	목회자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 3.5%	-
• 조사 기간	2021년 8월 30일 ~ 9월 9일	2021년 9월 3일 ~ 9월 5일
•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조사 수행 기관	(주)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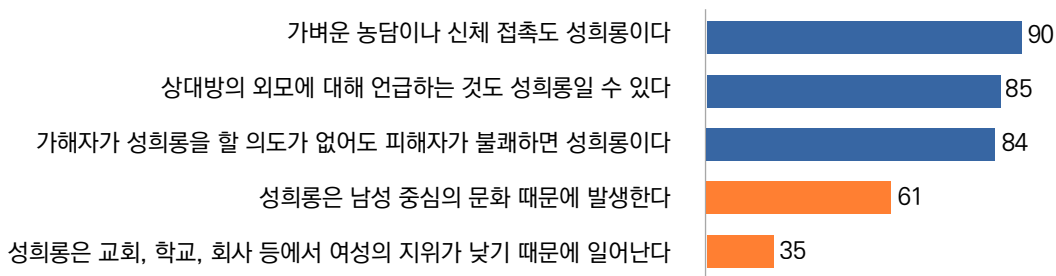
본 분석에 사용된 보고서 전문(Full Report)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홈페이지(<http://yourvoice.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01

## 개신교인, 성희롱 규정에 대한 이해도 높으나,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은 부족!

- ▶ 개신교인들은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90%)',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급'(85%)도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희롱을 규정할 때는 피해자 시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하면 성희롱이다'라는 응답이 84%인 것을 보면 성희롱에 대한 이해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 ▶ '성희롱은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에 61%만 동의했고, '성희롱은 교회, 학교, 회사 등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에 35%만 동의했다. 성희롱이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특히 조직 위계 구조가 심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이에 비춰 보면 개신교인들은 아직 성폭력의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성희롱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 '그렇다(매우+약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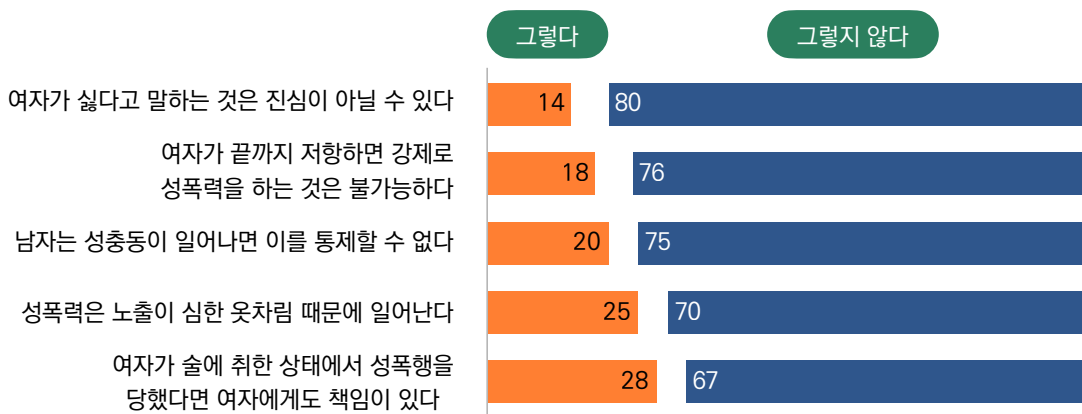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 개신교인 4명 중 1명 이상, 여성 성폭력 유발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있다고 생각!

- ▶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28%),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25%)는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려는 인식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
- ▶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20%)와 같이 극히 남성 중심의 사고가 어느정도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신교인 대상)\* (단위 :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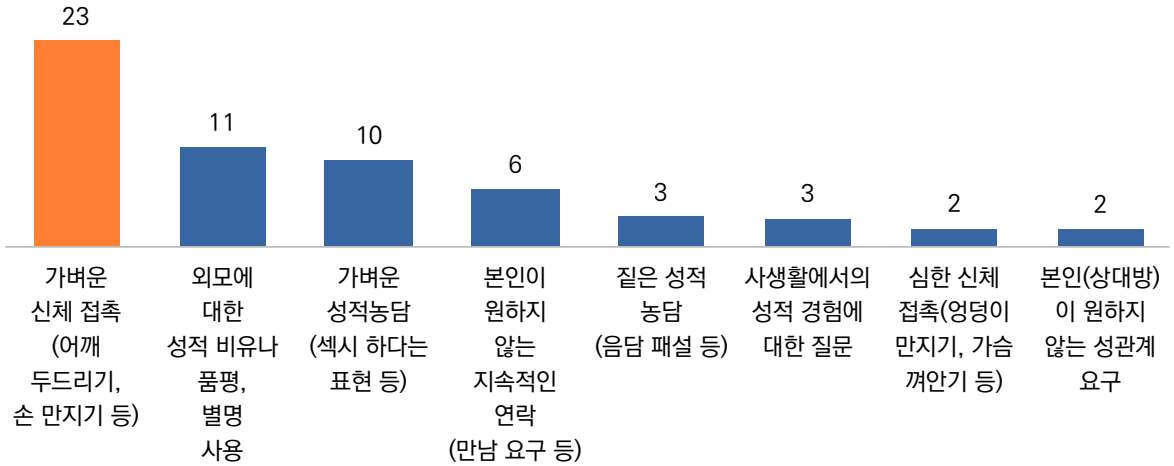
# 02

## 교회에서도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벌어져!

- ▶ 교회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주변에서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대체로 10%가 안되지만 '가벼운 접촉'은 23%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심각한 성희롱/성폭력 상황인 '심한 접촉', '성관계 요구'는 각각 2%로 수치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은밀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2%라고 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림] 출석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간접 경험(개신교인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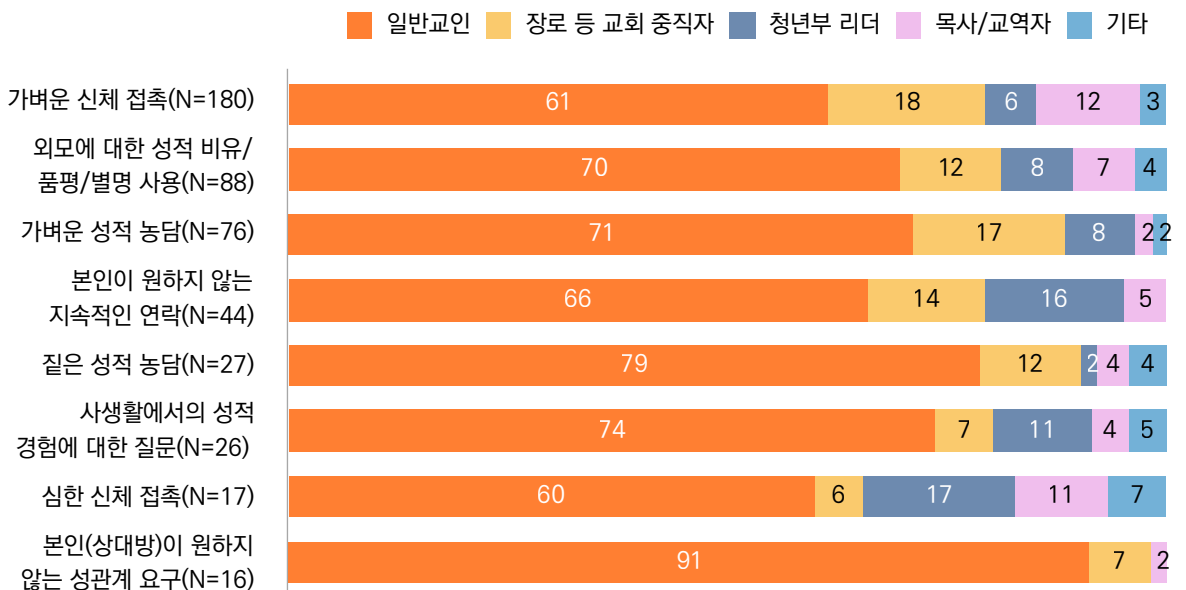
\*성폭력 개념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 교회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목회자 보다는 일반교인에게서 훨씬 많아!

- ▶ 언론에서 목회자 성폭력만 보도되어서 우리 인식 속에는 목회자 성범죄만 각인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 교인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 ▶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일부에게만 비난을 할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개신교인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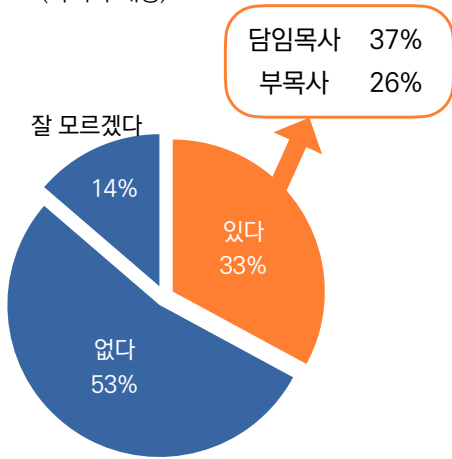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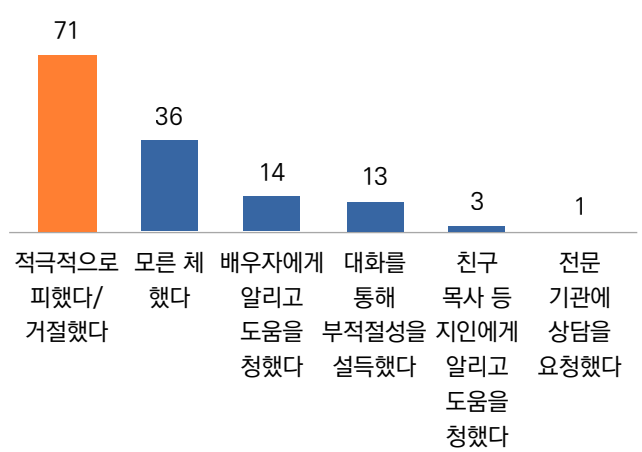
## 목회자 3명 중 1명,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적 있다!

- ▶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목회자가 3명 가운데 1명(33%)꼴로 높은 편이었는데 부목사보다는 담임목사가 더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 ▶ 이런 경우, 대처법은 '적극적으로 피했다/거절했다'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이성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온 경험 (목회자 대상)



[그림] 성도가 이성의 감정으로 다가왔을 때 대처 (목회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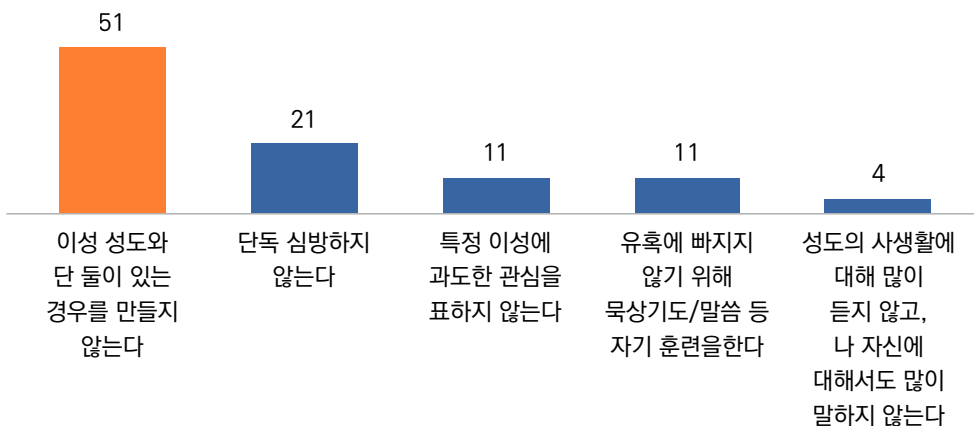


### ◎ 목회자가 이성 성도와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법, '단둘이 있는 경우 만들지 않는다' 51%

- ▶ 목회자들은 이성 성도와 성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다'(51%)나 '단독 심방을 하지 않는다'(21%) 등을 주로 꼽았다.

[그림]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점 (목회자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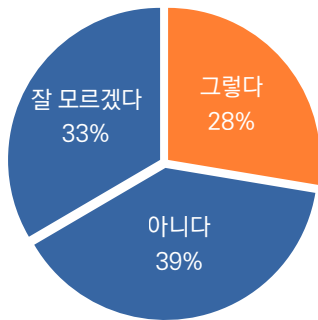


# 04

## 교단(총회)의 성폭력 예방 교육 미비

- ▶ 목회자들 가운데 소속 교단(총회)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밖에 되지 않았다.
- ▶ 그런데 주요 교단의 경우 총회에 성폭력대책 기구를 설치하거나 교회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총회가 형식적으로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했을 뿐 이를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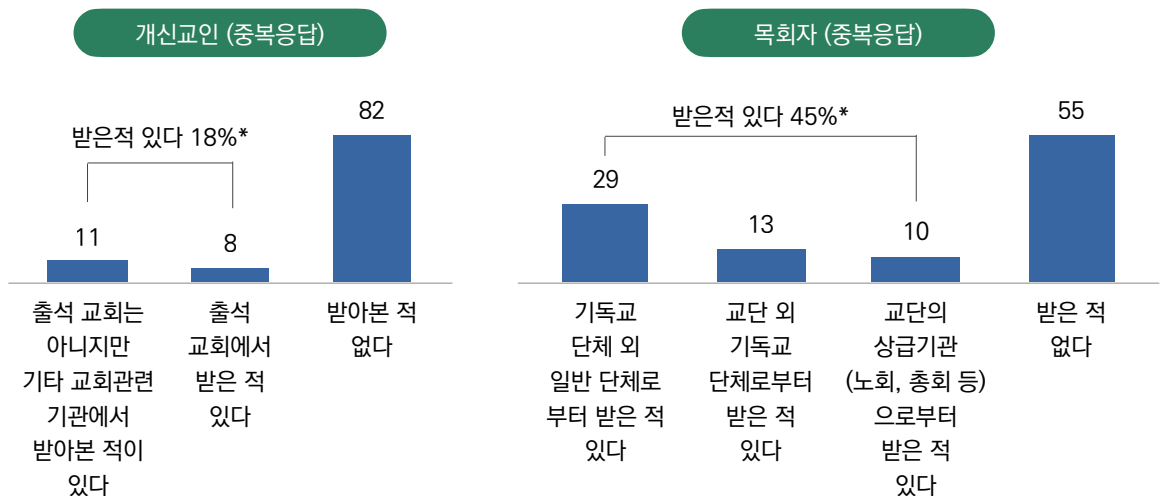
[그림] 교단(총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유무(목회자 대상)



### ◎ 목회자, “교단으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적 있다” 10%

- ▶ 출석 교회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은 8%이며, 노회/총회 등 교단으로부터 교육 받은 목회자는 10%로 두 그룹 모두 교회 및 교단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 소속교회나 교단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은 개신교인은 18%로 낮았으나, 목회자는 45%로 성도들 보다는 높았으나,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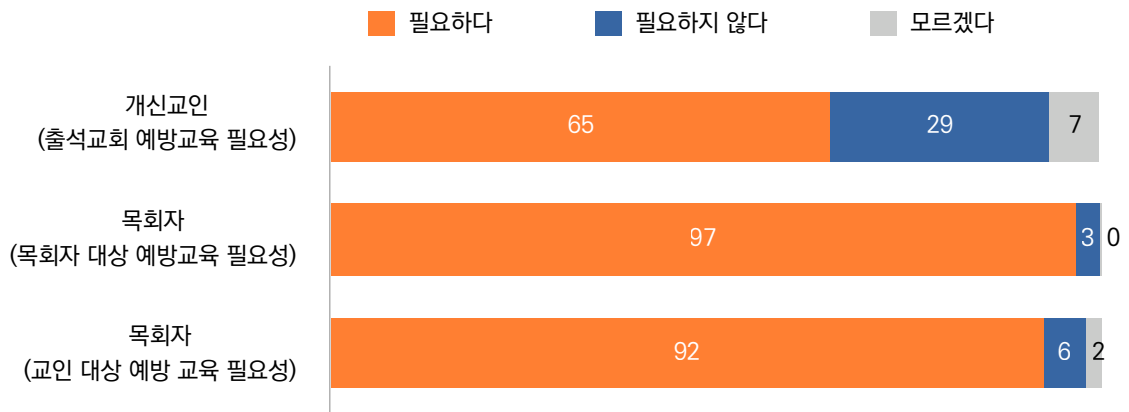
\*개별응답의 합이 합계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복응답으로 인한 것임.

## ◎ 목회자,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하다” 90% 이상!

- ▶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개신교인과 목회자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 ▶ 특히 목회자들은 목회자 대상 교육 뿐만 아니라 교인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길 정도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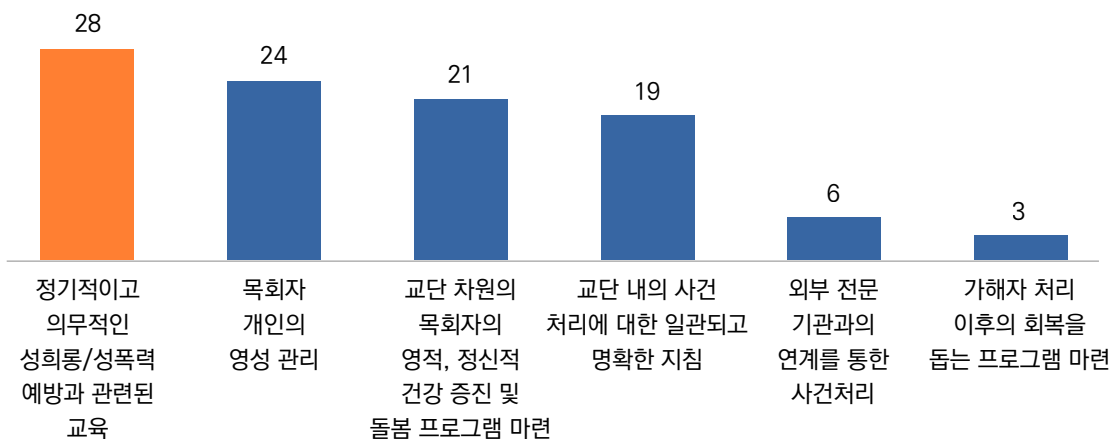


## ◎ 교회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건, “목회자 영성관리”!

- ▶ 교회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순위로 응답한 것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28%)이었다.
- ▶ 그런데 2위와 3위가 ‘목회자 개인의 영성 관리’(24%), ‘교단 차원의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돌봄 프로그램 마련’(21%)인 것을 보면 목회자의 영성 관리가 성범죄 예방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목회자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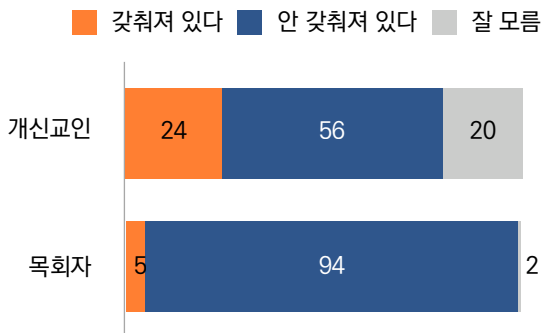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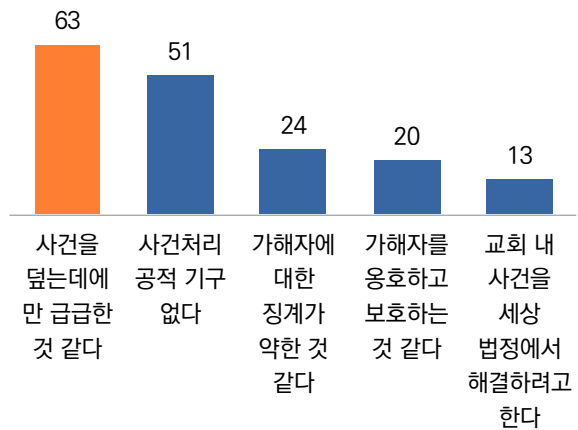
##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한국교회 성범죄 대응 시스템 부재 인식 높아!

- ▶ 한국 교회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 시스템 부재에 동의하고 있다.
- ▶ 구체적으로는 ‘사건을 덮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63%)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 같다’(24%) 등 처리 과정의 무원칙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는 것 같다’(51%)와 같이 제도/기구의 부재도 지적하고 있다.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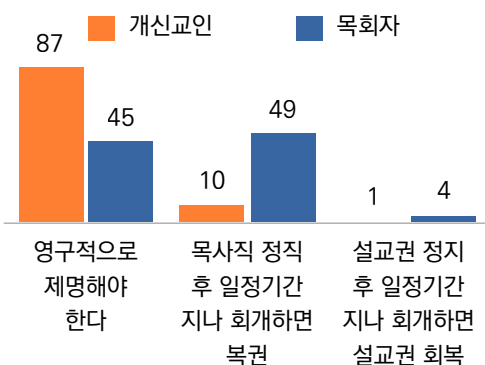
[그림] 한국교회 성범죄 대처 시스템 부재 이유 (목회자 대상, 1+2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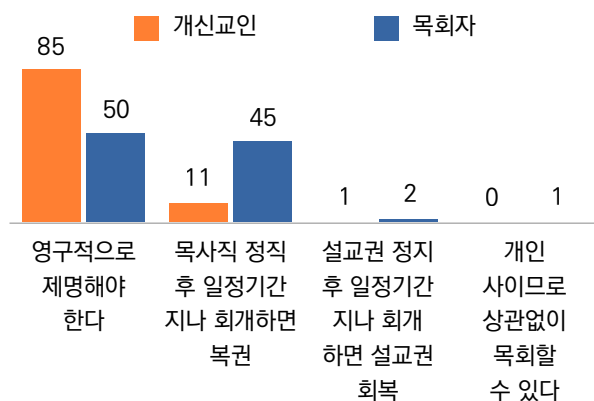
### ◎ 개신교인 87%, “교인대상 성범죄 일으킨 목사는 제명해야!”

- ▶ 목회자가 교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응답 결과가 차이가 난다.
- ▶ 개신교인들은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경우 모두 압도적으로 높는데, 목회자들은 영구적 제명과 ‘회개 후 복권’ 응답이 비슷해서 목회자들이 교인보다 좀 더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 목사가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 시 목사직 처리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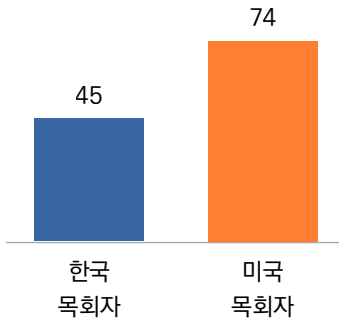




## ◎ 성범죄 목사에 대해 한국 목회자가 미국 목회자보다 더 관용적!

- 앞에서의 성범죄 목사의 경우, 한국 목회자는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45%인데 반해, 미국 목회자는 74%로 한국 목회자보다 훨씬 높아, 한국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목사가 교인 대상 성범죄시 ‘영구 제명해야 한다’ 의견  
(한국 목회자 vs 미국 목회자, %)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2021, 6. 22 'Most Pastors Say Sexually Abusive Ministers Should Step Down Permanently'  
<https://lifewayresearch.com/2021/06/22/most-pastors-say-sexually-abusive-ministers-should-step-down-permanently/>  
(미국 개신교 목사 1,007명, 온라인과 전화 조사, 2020.9.2.-10.1)

한국교회탐구센터는 2019년부터 3년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하여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빠지지 않는 고정 이슈가 목회자 성폭력 문제이다. 교회 내의 성폭력,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갖는 남성 우위, 목회자 우위의 문화와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그루밍 성폭력'이다. 교회 내의 성폭력 가운데 '그루밍 성폭력'이 많다고 하는데 그루밍(Grooming)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sup>1)</sup> 남성 목회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 여성(특히 아동, 청소년)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내의 성폭력이 남성 목회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개신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4쪽) 성폭력은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자제력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런 권위가 발현되도록 하는 교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폭력 발생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내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남성 목회자가 여성 성도들과 수평적 관계를 맺도록 구조적 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직분, 나이 등과 무관하게 서로가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할 때 목회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성도는 쉽게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교단에는 성폭력 대책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을 만들었지만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90%의 목회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단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7쪽) 성폭력 예

방을 위해서는 성폭력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단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학교 및 기업과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교회도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내의 성폭력 가해자가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다. 발생 비율은 오히려 평신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쪽) 목회자 성폭력은 교회와 언론에서 드러나지만 평신도에 의한 성폭력은 물밑에서 벌어지고 처리되어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성도들과의 교제와 친교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 언어 등에서 성희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목회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포함해서 온 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엇갈린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성범죄 목사,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를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는데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영구적 제명 의견과 비슷한 비율로 '목사직 정직 후 회개하면 복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목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성도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교회 내의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의 생물학적, 인격적, 사회적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또한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제는 '남자는 그럴 수 있지', '실수였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변명으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자칫 한번의 실수가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회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1) 다음 백과, '그루밍'(<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d1531>)